

# 現代中國語 被動標識의 文法化

- '被', '讓', '叫', '給'을 중심으로

金善雅\*

차례

1. 이끄는 말
2. 文法化(grammaticalization)의 機制
3. 被動標識의 文法化
4. 맺는 말

## 1. 이끄는 말

현대 중국어에서 被動文이라고 하면 '被'字文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被'字文은 중국어의 피동문의 일부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현대 중국어의 피동문은 크게 피동표지의 유무에 따라 '被', '讓', '叫', '給'의 유표지 피동문과 受事主語文, 즉 의미상의 피동문이라고 하는 무표지 피동문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이들 유표지 피동문의 예이다.

- (1) a. 活兒都讓他們干完了。  
(일은 그에게 다시켰다.)  
b. 墨水瓶叫弟弟打翻了。  
(먹물 병을 동생이 엎어버렸다.)  
c. 這本書給你弄臟了。

\* 龍仁大學校 中國學科 助教授 sakim@yongin.ac.kr

(책이 너 때문에 더럽혀졌다.)

d. 窗戶被工人刷上了綠漆。

(창문을 페인트 공들이 녹색으로 칠했다.)

일반적으로 '被'는 口語와 文語에 자유롭게 쓰이며 이에 반해 '讓', '叫', '給'은 口語에 쓰인다고 한다. 다시 다음 예를 보자.

(2) 我肯讓你打。 \* 我肯被你打。

(너더러 때리게 하고 싶어.)

(3) 我被抓住了。 \* 我讓抓住了。

(나는 잡혔다.)

그렇다면 이들의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장에서 선택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일까? 지금까지 현대중국어에서 피동문의 연구는 절대 다수가 피동 표지 '被'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다른 피동표지 즉 '讓', '叫', '給'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8,90년대에 들어 이들 개별 표지들 간의 통사, 의미, 화용, 인지 기능 등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현대중국어의 피동 표지의 연구에는 아직도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다. 그 중 피동표지의 범위의 확립 및 피동 표지 자체의 묘사와 분석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 중국어 피동표현의 여러 방식 중 한 사건이 어떠한 표지 혹은 어떠한 형식을 선택하여 상응하는 피동개념 나타낼 수 있는가? 여러 피동 개념의 표지 혹은 형식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들은 각자 어떠한 인지적 연원과 통시적 변화를 거쳐 온 것인가? 이들 표지 혹은 형식 사이의 피동 개념의 정도를 계열화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 많은 방면의 연구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출발하여 개별 피동 표지의 통시적 변화를 통해 이들의 공식 어법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이들의 차이점을 통시적인 관점, 특히 문법화 이론(grammaticalization)<sup>1)</sup>을 통

1) 중국 언어학계에서는 '虛化' 혹은 '語法化'라고도 한다. 언어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동서고금에 늘 있어 왔지만 기록상 문법화와 관련을 지을 수 있는 서양의 첫 인물은

해 演變을 살펴보고 논의하고자 한다.

## 2. 文法化(grammaticalization)의 機制

문법화란 “한 단어가 주로 어휘적 기능을 하는 것에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에서 ‘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킨다.<sup>2)</sup> 이러한 과정은 매우 유동적인데, 이를 연속변이(continuum)로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동사의 문법화 과정에 대해 Hopper & Traugott(1993[1999])은 동사로 부터 접사로의 연속변이로 보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4) 완전동사 > 매개동사(vector verb) > 조동사 > 접어<sup>3)</sup> > 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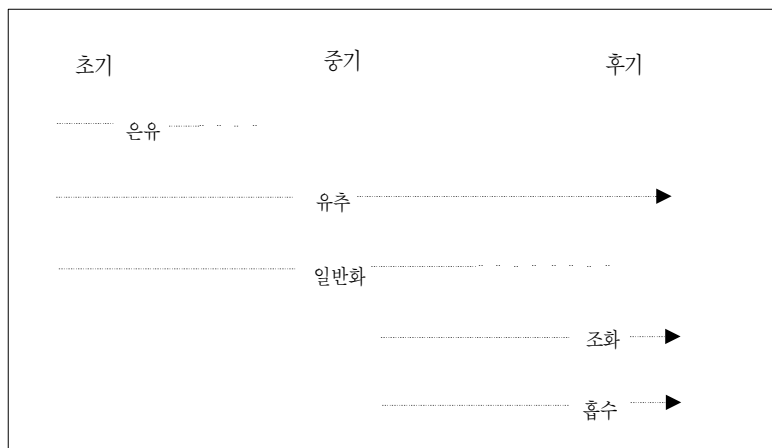
이러한 연속변이는 개별 동사들의 문법화 정도를 나타낸다. 문법화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가장 덜 문법화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장 많이 문법화되어 있다. 즉 오른쪽에 근접할수록 더 문법화된 것이며, 이 연속선상에 있는 형태들은 서로 가까울수록 문법화 정도가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하다.

문법화의 기제는 단계별로 각각 다른데, Bybee et al.(1994)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약 800년경의 Smaradus라고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문법화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동양에서의 첫 인물은 13, 14세기 元代의 周伯琦이다. 그는 저서 《六書正偽》를 통해 ‘大抵古人製字，皆從事物上起。今之虛字，皆古之實字(무릇 先人들이 글자를 만들 때는 사물을 따랐으며 지금의 허사는 모두 예전의 실사에서 유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당시 중국에서는 이미 실사, 허사의 개념을 이용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성하(1998) 참조.

2) Hopper & Traugot(1993[1999]) 참조.

3) 접어(clitic)는 혼자서 독립해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것에 기대어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다. 접어는 형태, 음운, 통사적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립어에서 비자립어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자립어의 단계를 벗어난 직후의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접어와 자립어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성하(1998)참조.



〈표 1〉 문법화의 단계별 기제

먼저 은유(metaphor)란 어떤 대상을 다른 종류의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의 인식론적 영역의 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동사들은 바로 개념의 전이, 즉 은유만 일어난 상태로 여전히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 일반 동사의 성격이 강하다.

한편 유추(analogy)란 언어 형태를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작용하는 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의 불규칙성을 대변하는 수많은 형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아무런 설명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sup>4)</sup>

일반화(generalization)는 어휘의 의미가 점점 특수성을 잃어 일반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의미 변화과정을 가리킨다. 이는 의미의 특수성이 적을수록 그 해당 단어가 쓰일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것이 쓰이는 분포가 넓다는 점에서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어의 의미 자질 중에서 특수 자질들이 적다는 점에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법화된 단어의 의미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는 이러한 추상적인 기능을 갖기 위해서 먼저 의미의 일반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4) Heine et al(1991)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Langacker(1977)는 재분석(reanalysis)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를 '어떤 표현 형식의 변화에 있어서 외형상으로는 어떤 직접적이거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변화'라고 정의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 형태의 구조를 인식하는 방법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외형상의 변화는 아니라는 뜻이다.<sup>5)</sup> 이러한 개념은 형태 변화가 없는 중국어의 문법화에 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 3. 被動標識의 文法化

#### 1) '被'

일반적으로 '被'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被N'의 '被'는 모두 개사, '被V'의 '被'는 모두 조사, 혹은 피동을 나타내는 '被'는 모두 개사가 그것이다. 이러한 기존 견해에 대해 張誼生(2003)은 피동을 나타내는 '被'에는 動賓式 '被V'의 '被'는 동사, 介賓式 '被NV'의 '被'는 개사, 부가식 '被V'의 '被'는 조사, 단어 '被V'의 '被'는 형태소로 여근 혹은 접사인 4가지 품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 '被'의 문법화는 '동사→개사→조사→접사'의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그는 太田辰夫(1987)의 견해를 인용하여 개사 '被'는 '被N'의 기초위에 형성한 것으로 문법화 기제 중 재분석(reanalysis)의 결과라고 보았다. 재분석은 표층구조 형식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a, b) c라고 분석되던 구조가 인지적 변화 때문에 a (b, c)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世說新語』의 '亮子被蘇峻害(亮子が蘇峻에게 당하다)'의 예에서 원래 '蘇峻害'는 수식구(偏正短語)로 '被'의 빈어였지만 후에 '개사+빈어' 구조로 분석되었다고 하였다.

다음 단계로 개사에서 조사로의 문법화는 언어의 경제성 원칙과 화용적 필요에 의하여 '被' 뒤의 施事, 原因, 道具를 나타내는 명사 성분이 탈락하고 '被'와 동사가 직접 결합하여 조사 '被'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보았는데 다음 예와 같다.

5) 이성하(1998) 참조. 재분석의 예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5) 自說被打膚體毀破, 幾失身命。《雜寶藏經·券6》  
(맞아서 뼈와 살이 모두 흩어져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 (6) 侍郎當時失對, 被貶潮州。《祖堂集》  
(侍郎이 당시 잘못하여 潮州로 귀양 당했다.)

이러한 조사 '被'의 '被V'형태가 정형화, 고정화됨에 따라 단어로서의 '被V'도 나타나게 되었다. 즉 점진적으로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가 되는 것이다. 그 구성 방식으로 첫째, '被'와 단음절 형태소가 결합되는 것으로 다음 예와 같다.

- (7) a. 被捕 被害 被控 被貶 被盜 被禁 被告 被試 被動 被迫  
b. 被擒 被囚 被圍 被竊 被殺 被劫 被查 被封(旅店~) 被套(炒股~)

(7a)의 예들은 전형적인 단어로 정착이 되었지만 (7b)의 예들은 아직 완전히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정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들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被捕, 被害'와 같이 대다수가 동사이지만 명사 '被告', '被試', 형용사 '被動', 구별사 겸 부사 '被迫' 등 다른 품사로도 轉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 외에도 다음절어를 형성하는 경향도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 (8) a. 被乘數 被除數 被加數 被減數 被害人 被壓迫 被剝削 被選舉權 被壓迫民族 被剝削階級  
b. 被槍決 被殺害 被包圍 被誤解 被遺棄 被淘汰

위에서 (8a)는 이미 단어로서 정형화된 것으로 보이며 (8b)의 단어들은 아직은 형성 단계로 볼 수 있다. 한편 張洪明(1990)은 기존 문법화와 관련된 이론들에서와 같이 문법화 과정이 기존의 의미 소실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추가라고 보았다. 그는 화용의 입장에서 문법화 이론의 체계를 확립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다시 말해 일부 학자들은 은유가 문법화의 관건이라고 여기지만 그는 문법화는 관련성에 관한 화용적 추리의 강화(pragmatic inferences to relevance)의 과정이며 은유의 의미의 표백이 아니라고 하였다.<sup>6)</sup> 즉 문법화는 단순히 실제 의미를 가진 '實

詞의 虛化'라는 전통적인 도식에서 벗어나 의미, 화용적 필요에 의해서도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그는 '被'는 원래 '(잠을 잘 때) 덮는 것'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說文解字》의 예를 들었다.

- (9) 被, 寢衣, 長一身有半, 從衣皮聲。《說文解字·衣部》  
(被, 잠잘 때 덮는 것으로 길이는 몸의 반이다. 衣皮聲을 따른다)

이러한 용법은 현대 중국어에서도 여전히 쓰이고 있다. 다시 이 '덮개'라는 명사적 의미는 '덮다'로의 행위동사로 의미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다음 예와 같다.

- (10) 天被爾祿。《詩經·大雅·既醉》  
(하늘은 너에게 祿을 입혔다.)  
(11) 澤被生民。《荀子·臣道》  
(生民을 이롭게 했다.)

'덮다'라는 행위동사에서 '당하다'로의 이행에는 두 가지 단계가 포함되어있는데, 첫 단계는 초점을 재선택하는 것으로 발화자의 초점이 주체에서 장소로 바뀐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덮다'라는 중성적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교체되는 것을 가리킨다. 인지언어학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발화자의 동사로 발현되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인상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sup>7)</sup> 기존 연구에 따르면 印歐語의 심리를 나타내는 단어는 생리적 행위의 동사에서 발전되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덮다(被)'가 가리키는 행위는 스스로 통제할 수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피행위자는 이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피행위자의 무력함, 여의치 않음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된다. 비록 피행위자에게 유익하다고 해도 그것은 통제 가능한 행위가 아니

6) Hopper & Traugot(1993(1999)) 참조.

7) Langacker(1987,1991)참조, 張洪明(1990) 재인용.

다. 예문 (11)의 '澤'은 하늘이 주는 것으로 中國 古代社會에서 이러한 恩賜는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피행위자는 피동적인 입장이 된다. 그러므로 '덮다'가 나타내는 동작행위의 심리적 이미지는 피행위자가 원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점차 부정적인 속성을 띠면서 피해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쓰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관련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2) 處非道之位, 被衆口之譏。《韓非子·奸劫弑臣》  
(道義에 어긋나는 자리에 있어 헐뜯음의 대상이 되었다.)
- (13) 地小人衆, 被水旱之災。《史記·貨殖列傳》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 가뭄과 홍수의 재해를 입었다.)

다시 다음 예문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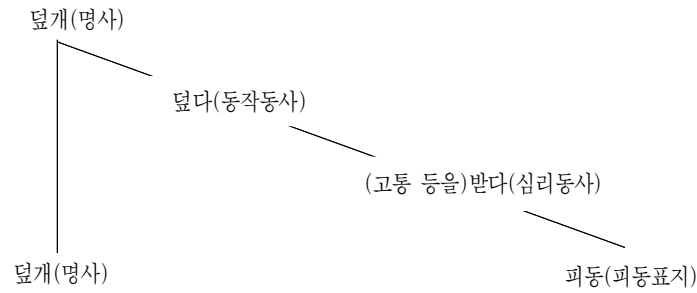
- (14) 國一日被攻。《戰國策·齊策》  
(어느 날 나라가 공격을 받았다.)
- (15) 信而見疑, 忠而被謗。《史記·屈原賈生列傳》  
(신뢰하면서도 의심당하고 충성하면서도 비방당하다.)

예문 (12), (13)의 심리동사 '被'는 처소와 주제 사이의 심리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위 예문 (14), (15)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처소는 受事로 바뀌었으며 원래 두 개의 참여자 중 주제가 생략되어 심리동사의 기능을 잃게 된다. 즉 受事が 주어가 되며 다른 행위 동사가 주요 동사가 된다. 여기에서 '被'는 더 이상 행위동사가 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동표지가 되고 새로운 행위동사와 결합하여 피동을 나타내게 된다.<sup>8)</sup> 여기서 '被'는 마침내 영어의 'be+V+en'과 같이 극히 추상적인 도상성을 가지는 의존 형태소가 된다(非自由語素).<sup>9)</sup> 즉 '被'의 문법화를 통한 의미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 문법화에도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데, 불가역적(irreversible) 즉 이전으로 되돌아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9) 현대 중국어법에서 도상성(schematic)은 '圖示性' 혹은 '臨摹性'이라고 한다.





〈그림1〉 ‘被’의 의미 변화

2) ‘讓’

‘讓’이 실사이냐 허사이냐에 관해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먼저 다음 예를 보자.

(16) 我讓他走。

문장에서 ‘讓’을 문장의 동사로 보면 實詞, ‘走’를 중심으로 보면 ‘讓’은 개사, 즉 虛詞가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국어는 새로운 정보를 文末에 두기 때문에 문장 끝의 동사 혹은 동사성 구조가 의미의 중심이 되게 된다. 이러한 통사적 원인으로 ‘讓’의 허화가 가속화되게 된다. 기존 학자들은 ‘讓’은 ‘使令’, ‘양보, 허락’의 의미 항목에서 문법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는데 呂淑湘(1980(1994))은 ‘我讓他說了几句’에 다음과 같은 중의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sup>10)</sup>

- (17) a. 我請他說了几句。  
 (그에게 몇 마디하게 했다.)  
 b. 我容許他說了几句。  
 (그가 몇 마디 하는 걸 허락했다.)

10) 徐丹(2004)은 각각 ‘我請他說話/他說話, 我沒干涉/我被他批評了’ 라고 보았다.

- c. 我被他說了几句。  
(그에게 몇 마디 들었다.)

문법화의 재분석 이론에 따르면 ‘讓’은 동사에서 개사로 문법화하고 있는 중간 상태라는 것을 보여 준다<sup>11)</sup>. 이러한 ‘讓’의 통시적 변화는 공시적 평면에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로 구현되며 그 과정은 (a)→(b)→(c)로 도식화할 수 있다.

- (18) a. 我讓他來, 他不來。  
(그더러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 사동)  
b. 他想來, 我讓他來了。  
(그가 오고 싶어 해서 오라 했다: 양보, 허락)  
c. 樹讓大風刮倒了。  
(나무가 태풍에 쓰러졌다: 피동)

예문 (18b)에서 ‘讓’의 ‘허락’, ‘양보’의 의미는 ‘向…讓步’이기 때문에 ‘讓’이 개사로 문법화되어도 예 (18c)와 같이 개사가 이끄는 대상이 꼭 있어야 하며 생략할 수 없다. 한편 ‘被’의 문법화와 비교해 볼 때, ‘讓’의 문법화 시기가 더 늦다. 《辭源》, 《辭海》, 《漢語大字典》, 《紅樓夢》 등에는 개사로 문법화된 예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근대에 들어와 문법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被’와 달리 조사로 문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중국어에서 ‘讓’ 피동문은 반드시 施事를 수반해야 하며 그에 반해 ‘被’는 자유롭다.<sup>12)</sup> 다시 말해 ‘讓’, ‘被’ 모두 문법화되었지만 원래의 의미가 허사에 잔존하게 된다. 沈家煊(1999)은 이러한 현상을 ‘의미체류(意義滯留)’라고 하고 새로운 허사의 의미가 나타날 때 예전의 의미가 모두 소실되

11) 재분석(reanalysis)이란 용어는 문법화론에서 오랜 동안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어떤 표현 형식의 변화에 있어서 외형상으로는 어떤 직접적이거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변화라고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 형태의 구조를 인식하는 방법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외형상의 변화는 아니라는 뜻이다. 일부학자들은 재분석을 유추의 일정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또 문법 형태의 구조를 재분석함으로써 복잡한 구조들이 단순한 구조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볼 때 재분석은 단순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성하(1998) 참조.

12) 훗날 ‘樹讓刮倒了’처럼 ‘讓’이 조사로 문법화되는 것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용법이 예전의 용법을 구현한다고 보았다. ‘我肯讓你打’에서 實詞 ‘讓’의 용법은 능동의 조동사 ‘肯’과 함께 쓰이지만 ‘\*我肯被你打’와 같이 ‘被’는 이들과 결합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된 예는 다음에도 있다.

- (19) a. 我情愿讓他罵一頓，你管不管。  
(나는 기꺼이 그가 한대 때리도록 하고 싶어, 네가 어떻든지.)  
b. \* 我情愿被他罵一頓，你管不管。
- (20) a. 我能讓你打贏。  
(나는 너를 이기게 할 수 있어.)  
b. \* 我能被你打贏。

그러나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 ‘應該’는 ‘被’ 앞에 올 수 있지만 ‘讓’과는 결합하지 않는데 다음 예와 같다.

- (21) a. 這個殺人犯應該被當局槍斃。  
(이 살인자는 반드시 당국이 총살시켜야한다.)  
b. \* 這個殺人犯應該讓當局槍斃。
- (22) a. 別讓他拿去了。  
(그가 가져가지 않게 해.)  
b. \* 別被他拿去了。

즉 피동 표지 ‘讓’은 능동적 의미의 조동사 ‘能’, ‘肯’, ‘情愿’, ‘企圖’ 등과 결합하고 피동적 의미의 ‘應該’, ‘應當’, ‘應’, ‘該’ 등은 일반적으로 ‘被’와 함께 결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는 本義가 ‘遭受’인 ‘被’에 비해 ‘讓’의 本義가 ‘容任’이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주어의 피동성 혹은 동작에 의한 영향의 강도가 ‘被’가 ‘讓’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어가 비교적 강한 영향을 받거나 더욱 피동적일 경우 피동표지 ‘讓’보다는 ‘被’를 쓰게 된다.

## 3) ‘叫’

‘叫’은 일반적으로 明清代에 들어와 피동표지로 문법화된 것으로 본다. 唐代의 ‘叫’은 ‘소리 내어 부르다(呼叫, 喊叫)’ 의미의 일반 동사였다. 그 후 宋代 중기와 말기에 兼語文에서 첫번째 동사로 사용되면서부터 피동 표지로서의 문법화 조건을 갖추게 되었는데 다음 예를 보자.

(23) 我叫他過來是看咱。(關漢卿《玉閨香夜月四春園》)

그더러 우리를 보러 건너오라고 말했다.

(24) 叫主人家辭了去來。(《老乞大諺解》)

주인더러 인사하고 오라고 하다.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兼語文에서 ‘叫’의 의미는 아주 단순하다. ‘말로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통지(用語言通知某人做某事)’하는 의미가 그것이다. 즉 본래의 의미가 ‘소리를 내어 부르다’에서 ‘큰소리로 말하다(大聲說話)’로引伸된 것이다.<sup>13)</sup> 그 후 明代 初期에 들어와 ‘叫’의 겹어문의 용례가 점점 많아졌으며 이와 함께 새로운 의미항목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는데 다음 예와 같다.

(25) 叫孩兒們松了馬肚帶。(《水滸傳》35回)

아이더러 말의 복대를 풀라고 말했다.

(26) 我有本事叫鳳丫頭弄了來咱們吃。(《紅樓夢》35回)

난 鳳丫頭가 우리가 먹을 음식을 하라고 할 수 있지.

(27) 鄉人都叫老漢做桃花庄劉太公。(《水滸傳》2回)

고향사람들은 그를 桃花庄 劉太公이라고 불렀다.

(28) 大碗斟酒, 大塊切肉, 叫衆人吃得飽。(《水滸傳》7回)

대접에 술을 따르고, 고기를 큼지막이 썰어 모두가 배불리 먹도록 했다.

(29) 老弟, 你爲什麼就去了這些時, 叫我終日盼望。(《儒林外事》16回)

동생, 왜 이런 때 가버려서 나를 이리도 기다리게 하는가.

13) 石毓智(2006) 참조.

위의 예문을 통해 당시 '叫'의 의미 항목이 차례로 원래의 '말로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통지(用語言通知某人做某事)', '지시 및 사역', '…라고 부르다(호칭)', '…하도록 허락 혹은 용인', '致使' 등으로 세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 항목 중에서 '…하도록 허락 혹은 용인'과 '致使'의 의미가 피동으로 문법화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즉 예문 (28)의 술과 고기('酒', '肉')로 모든 이를('衆人')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어로 하여금 어떤 환경을 조성하게 하거나 어떤 조건을 갖추게 하여 兼語가 어떤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된다. 이때 주어는 보통 하나의 상황으로 有生이 아니다. 이는 피동문의 주어와 유사하다. '杯子叫他打破了'의 예와 같이 일반적으로 피동문의 주어 자리에는 무생물이 오기 때문이다. 또 예문 (29)는 '致使'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피동문의 문형과 무생물 주어가 온다는 점에서 피동문으로의 문법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叫'의 전형적인 피동 용법은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대부분 '허락' 혹은 '용인'의 의미 특징을 가지게 된다. 다음 예를 보자.

- (30) 太太倒不糊涂，都是叫金剛菩薩支使糊涂了。(《紅樓夢》43回)  
 마님은 오히려 괜찮으셨는데 '金剛', '菩薩'이 얼이 빠졌다.

18세기에 들어와 피동표지로서 '叫'의 사용이 상당히 보편화되면서 기존의 피동표지 '被'와 기능상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叫'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화에 주로 쓰이며 '被'는 중대한 사건에 관한 대화에 주로 쓰이게 된다. 또 동사의 及物性 특징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叫'는 '留住', '知道', '支使', '教' 등 受事に 직접적인 물리적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 낮은 及物性 동사와 결합한다. 상대적으로 '被'는 앞서 언급한 '叫'의 기능도 갖추지만 중대한 상황의 경우, 또 물리적으로 受事 주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높은 及物性 동사와 결합하는데 다음 예와 같다.

- (31) 你只好生收着罷，千万别叫他知道。(《紅樓夢》21回)  
 네가 그냥 참는 수밖에, 절대 그가 알면 안 돼.  
 (32) 依旧被我鬧了个馬仰人翻，更不成个体統。(《紅樓夢》43回)  
 예전과 다름없이 내게 혼이 났으니 더더욱 체통이 서지 않지.

## 4) ‘給’

하나의 어법 표지가 탄생하는 데에는 주요한 요건이 있는데, 의미의 연관성과 적합한 통사적 환경이 그것이다. ‘給’가 피동표지로 문법화된 의미의 연관성은 바로 ‘給予’이다. 또 이 의미가 이중 빈어의 통사적 환경을 마련했다.<sup>14)</sup> 蔣紹遇(2003)는 ‘給’의 피동화 과정을 ‘被’와 ‘讓’과 같이 자체 의미의 허화가 아닌, 문형의 변화로 인해 의미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았다. 그는 ‘給’의 의미 변화를 給1(給予) → 給2(讓, 叫) → 給3(被)라고 제시했는데 그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給予’의 의미로 ‘A+給+B+N+V(A가 B에게 N을 주다, B가 VN하다)’로 나타낼 수 있다. 《紅樓夢》에는 ‘給予’ 의미의 ‘給’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다음 예와 같다.

- (33) 那四支給了鳳哥罷。(紅7回)  
(그 네 개를 鳳哥에게 주고말지.)  
(34) 往常老太太又給他酒喫。(紅8回)  
(常太太는 또 그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

예문 (23)은 피동문으로 발전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給’가 표지가 되는 피동문은 ‘給’외 다른 동사가 더 와야 하기 때문이다. (24)는 ‘給’+N+V의 형식으로 동사 ‘給’의 빈어 뒤에 ‘喫’라는 동사가 더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피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이 문형이 바로 피동문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사동문 역시 사역동사 외에 또 다른 동사가 와야 하는데 예문 (34)이 바로 이러한 조건에 부합된다.

둘째, ‘給予’의 의미가 ‘讓, 叫’로 발전되는 단계로 ‘(A)+V1+N+給+B+V2’로 나타낼 수 있다.

- (35) 芳官連要洗頭也不給他洗。(紅59回)

14) 石毓智(2006) 참조.

(芳官은 머리를 감으려고 해도 씻어주지 않았다.)

(36) 你先給你娘瞧瞧。(紅52回)

(어머니께 먼저 보여드려.)

이러한 문형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문형에서 N은 이미 동사 '給' 앞에 오고, 뒤 부분의 어순은 '給+B+V'로 사동문 '讓/叫+兼語+V'의 형태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 '給'의 의미는 약해지면서 'A', 'B' 사이의 관계, 즉 A로 하여금 B를 동작하게 하는 使動의 의미를 표시하게 되었다. 즉 '給'의 의미의 문형에서는 두 명사가 '給'와 V사이에 오며 B는 V의 施事者이고 N은 V의 受事者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형은 피동표지와 동사 사이에 한 개의 명사가 오는 피동문과는 거리가 있다.<sup>15)</sup> 반면 사동의 의미를 지닌 '(A)+V1+N+給+B+V2' 형식은 '給' 문형에서 'N'이 원래 'A'와 'V'사이에서 빠지고 '給', 'V'사이에는 'B'만 남아 피동문의 문형과 더욱 근접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橋本萬太郎(1987)은 '給'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어 무엇인가를 하게하다(給對方讓有機會做甚麼, 容讓)'로 쉽게 引伸된다고 하였다.

셋째, 唐代부터 사동문이 피동문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1860년대부터는 이미 '給'은 '叫'와 통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給'과 '叫'은 모두 '被'로 볼 수 있는데 다음의 예와 같다.

(37) 千萬別給老太太、太太知道。(紅52回)

(절대 노마님과 마님이 아시면 안 돼.)

(38) 就是天, 也是給氣運使喚着。(儿女英雄傳 3回)

(바로 하늘이 또한 기운을 부돋고 있다.)

피동의 '給'문형은 'N+給+B+V'로 나타낼 수 있는데 'N'은 'V'의 受事이며 'B'는 V의 受事로 '給'의 기능은 '被'에 해당된다. 그러나 예문 (37)은 '使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重義性이 있기 때문이다.

15) 이 명사는 술어동사의 施事이다.

- (39) a. (你)千萬別千萬別給老太太、太太知道。  
(너 노마님과 마님께서 아시게 해서는 절대 안 돼.)  
b. (這件事)千萬別千萬別給老太太、太太知道。  
(이 일은 절대 노마님과 마님이 아시면 안 돼.)

위 예문의 동사 '給' 앞에는 명사성분이 없다. 만약 이 부분을 빈자리로 두고 '( ) 給'에 동사의 A가 '施事'이면 사동문이 되고 'N'이 受事이면 피동문이 되는 것이다.<sup>16)</sup> 이러한 '給'의 변화는 피동 표지로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관건적인 요건이 되었다. 또한 被動文의 표지로 전환되면서 '叫, 讓' 피동표지의 영향을 받아 이미 실현된 사건의 진술로서 완료를 나타내는 '了'와 함께 결합된 문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40) 那些沒丟的, 也給海水打濼了。 《百姓官話》  
(잃어버리지 않은 것도 바닷물에 쓸려 가버렸다.)  
(41) 里頭原是給雨打濕了的。 《百姓官話》  
(원래 안은 비에 다 젖어버린 것이었다.)

이러한 '了'와의 결합 형태는 문법화의 기제 중 '叫, 讓' 피동표지의 형태를 유추(analogy)한 것으로서 완전한 피동을 기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사 '被'+동사빈어의 형식은 '被' 자체의 성질 변화로 접사가 되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實詞虛化'이지만 '給'은 문형의 변화로 인한 유추의 문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능 확장(功能擴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또한 이러한 사동과 능동의 또 다른 구별방법으로 被動형이라면 'V'는 반드시 及物動詞이어야 하며 사동형은 及物, 非及物의 제한이 없다고 하였다. 蔣紹遇(2003) 참조.



#### 4. 맺는 말

이상에서 같은 피동표현이지만 그 용법과 분포에서 차이가 나는 피동표지들의 문법화 과정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被’의 문법화는 ‘동사 → 개사 → 조사 → 접어 → 접사’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被’가 현대 중국어에서 이미 접어(clitic)의 형태로 단어의 어근 혹은 접미사로서 문법화가 거의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또한 의미면에서는 ‘덜다’가 나타내는 동작행위의 심리적 이미지는 피행위자가 원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점차 부정적인 속성을 가져 피해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쓰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현대 중국어에서 긍정적 의미의 피동문형이 출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용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이러한 本義의 영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讓’은 ‘被’의 문법화와 비교해 볼 때 그 시기가 늦는데 近代에 들어와 문법화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또한 ‘被’와 달리 조사로 문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중국어에서 ‘讓’ 피동문은 반드시 施事를 수반해야 하며 그에 반해 ‘被’는 자유롭다.<sup>18)</sup> 또 의미상 주어의 被動性이 높을 경우 ‘용인 혹은 수용(容任)’의 의미를 가진 ‘讓’보다 ‘피해 혹은 영향(遭受)’의 의미를 지닌 ‘被’가 더 많이 사용되는 차이를 보인다. 또 ‘叫’와 ‘給’과 같이 비교적 後代에 나타난 피동 표지에 비해 훨씬 더 문법화된 경향을 보여 현대 중국어 口語에서는 이미 피동표지 ‘被’를 대체하는 피동표지로 정착되고 있다.

또 ‘叫’는 元明代부터 사동용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그 수가 미미하였고 본격적으로 清代 《紅樓夢》 등 明清代의 語料에서 진정한 사동용법이 대량으로 출현하면서부터 피동 표지로서의 문법화 과정을 거쳤다. 현대 중국어에서 ‘叫’는 아직도 문법화 되고 있는 과정으로 일반적인 실질적 의미를 지닌 동사로 함께 공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被’가 비교적 주어에 대한 영향이 크거나 혹은 중대한 사건과 관

17) 접어는 자립어에서 비자립어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자립어의 단계를 벗어난 직후의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접어와 자립어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성하(1998)참조.

18) ‘讓’은 ‘被’의 ‘동사 → 개사 → 조사 → 접어 → 접사’와 달리 현대중국어에서 개사로서의 문법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련되는 데 비해 '叫'는 주어에 대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거나 일상생활사와 관련된 피동문에 주로 쓰이는 차이점을 보인다.

한편 '給'는 현대 중국어의 피동표지 중에서 가장 늦은 문법화를 보이고 있는데 清代 중기에 사동과 피동이 출현하였다. 그 피동화 과정은 '被'와 '讓'과 같이 자체 의미의 허화가 아닌 문형의 변화로 인한 유추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형 변화의 영향으로 '給'의 의미는 '給予' → '讓, 叫' → '被'로 변화했고 문형에서도 역시 피동문으로서 정착되었다. 그러나 '叫'와 마찬가지로 피동 표지로서 완전한 문법화는 실현되지 않아 다른 의미 항목의 개사 혹은 일반 동사로서의 기능이 함께 공존한다.

이렇게 의미면에 있어 '讓, 給, 叫'는 '被'와 달리 사동에서 피동으로의 전환되었거나 전환 중인 단어들로 현대 중국어에서 사동의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피동의 의미도 겸하게 되어 피동표지 '被'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의미의 분화로 인한 통사구조 변화의 문법화를 거쳐 같은 피동표지로서 기능상 유사성을 가지지만 문법화 이전의 實詞의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그 기능에 영향을 주어 현대 중국어에서의 기능상, 분포상 차이를 발생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여러 피동표지의 통시적 문법화 과정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더욱 심층적인 집중분석을 후속연구에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高順全, 〈試論被字句的教學〉, 廣州: 《暨南大學華文學院學報》, 1期, 2001.
- 屈哨兵, 〈現代漢語被動標記研究檢討〉, 廣州: 《廣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卷, 第12期 2005.
- 汲傳波, 〈被動句中被、讓的分工〉, 喀甚: 《喀甚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22卷, 第1期 2001.
- 김은일·박기성·채영희 옮김, Paul J. Hopper & Elizabeth Closs Traugott, 『문법화(Grammaticalization)』, 서울: 한신문화사, 1999

- 呂淑湘,《現代漢語八百詞》,北京:商務印書館,1980[1994].
- 徐 丹,《漢語句法引論》,北京:北京語言大學出版社,2004.
- 石毓智·李訥,《漢語語法化的歷程》,北京:北京大學出版社,北京:2001.
- 石毓智,《語法化的動因與機制》,北京:北京大學出版社,北京:2006.
- 沈家煊,《不對稱和標記論》,南昌:江西教育出版社,1999.
- 안희돈, 강명운 등 옮김,『영어와 한국어의 통사구조 연구』, 서울:경진문화사, 2000.
- 吳文吉·周小兵,〈“被”字句與“叫、讓”被動句在教學語法中的分離〉, 貴州:《雲南師範大學學報》第2卷 第4期 2004.
- 王 靜,〈從語意級差看現代漢語被字的使用〉,《新視角漢語語法研究》,北京: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1997.
- 이성하,『문법화의 이해』, 서울:한국문화사, 1998.
- 李臨定,〈被字句〉,北京:《中國語文》第6期,1980.
- \_\_\_\_\_,《現代漢語句型》,北京:商務印書館,1987.
- \_\_\_\_\_,《現代漢語動詞》,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
- 丁建川·曹賢香,〈淺談被字句〉,泰安:《岱宗學刊》,第2期,2002.
- 張美蘭,〈近代漢語使役動詞及其相關的句法、語義結構〉,北京:《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1卷 第2期,2006.
- 張誼生,〈助詞“被”的使用條件和表意功用—兼論“被”的虛化軌迹〉,《語法化與語法研究(一)》,吳福祥·洪波 主編,北京:商務印書館,2003.
- 張洪明,〈漢語“被”的語法化〉,《漢語語法化研究》,北京:商務印書館,2005.
- 蔣紹遇,〈“給”字句、“教”字句表被動的來源—兼談語法化、類推和功能擴展〉,《語法化與語法研究(一)》,吳福祥·洪波 主編,北京:商務印書館,2003.
- 조성식,『A DICTIONARY OF ENGLISH LINGUISTICS, 英語學辭典』, 서울:신아사, 1990.
- 吳福祥·洪波 主編,《語法化與語法研究(一)》,北京:商務印書館 2003.
- 洪 波,〈語篇層面的“被”字句及其教學〉,貴州:《雲南師範大學學報》,第1卷 第3期 2003.
- Bybee et al.(1994),《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and

-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ine et al(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1987,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Stan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Brief Study about grammaticalization of the Chinese Passive Markers  
- 'bèi(被)', 'ràng(讓)', 'jiào(叫)', 'gěi(給)'

Kim Seon-ah

The grammaticalization is revealed by the study of some passive markers' evolution( 'bèi(被)', 'ràng(讓)', 'jiào(叫)', 'gěi(給)) in ancient and modern Chinese. The features of the grammaticalization of passive marker in Modern Chinese language are found by comparison of passive markers themselves. Finally, This paper want to explain the reasons why the some passive markers('bèi(被)', 'ràng(讓)', 'jiào(叫)', 'gěi(給)) becomes dominant as passive markers at same time and it's differances.

關 鍵 詞 : grammaticalization, 'bèi(被)', 'ràng(讓)', 'jiào(叫)', 'gěi(給)', passive markers

투 고 일 : 2008년 7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08년 8월 15일
---